

예배로의 부름

미원주민선교주일



본 예배 자료는 목회자 및 지도자들을 위한 미원주민선교주일 자료집의 일부이며 “회개, 회심, 회복의 길”이라는 주제로 작성되었습니다. 자료 꾸러미에 포함된 다른 자료들을 각 교회 및 예배의 상황에 맞게 바꾸어 사용하세요. **이 자료는 2025년 5월 4일의 성서 일과표 본문인 사도행전 9:1~6 및 시편 30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성령께 드리는 기도

오 위대한 영이시여,
주님의 숨결은 세상에 생명을 주시고,
주님의 음성은 부드러운 산들바람 가운데 들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힘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름답게 걷게 하소서. 우리에게 눈을 주셔서
붉은빛 보랏빛 석양을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주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깨닫게 하소서.
모든 나뭇잎과 바위에 숨겨두신 교훈을 배우게 하소서.
우리가 항상 깨끗한 손과 변함없는 눈으로 주님께 나아오게 하셔서,
우리 인생이 석양처럼 지는 날, 우리의 마음이 부끄러움 없이 주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아멘.

- 미원주민 전통 기도, 연합감리교 찬송가 #329

예배로 부름

시편 30편(연합감리교 찬송가 #762)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며, 내가 주께 부르짖으매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이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 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시매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